

(317)

317. 가?

말씀: 눅9:23

요절: 눅9:23

오늘은 '영적 성숙과 제자 되기'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성장'을 요구합니다. 영적 성장은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어린 아이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마치 갓 태어난 아이들로 붐비는 병원 신생아실이나 유아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Pre School이나 Kindergarten의 모습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 장로들, 나이든 자까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벌써 청년, 어른이 되어야 마땅한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 아기나 어린이의 모습으로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적, 양적 증가를 부흥이나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대한 크기의 교회 내에 수백, 수천의 어린이들이 젖을 물고, 기어 다니며, 울고, 싸우고, 뛰어 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형적인 모습이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헌신을 통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둘로 분류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1-2, [, 가

. 가 가
.](고전3:1-2). 육신에 속한 자도 구원받은 성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는 분명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갓 거듭난 성도는 모두 영적 '갓난아기'들입니다(벧전2:2).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그 젖으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장 판이 닫힌 아이들 마냥 자라나지를 않는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형제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본문에는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유치합니다. '어린 애 같다'는 말은 순진하다는 뜻도 되지만 아직 자라지 못했다, 덜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이 같은 짓을 그만두게 하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가

](고전13:11). 어른이 되어 버리면 아이 때의 버릇, 습관, 취

미 등등을 다 벗어 버립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만이 해결책입니다. 히브리서 5:12-13, [가 가 가
가 가
가 .](히5:12-13).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젖을 떼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제 젖을 그만 물리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으로 살게 하면 며칠씩 ‘젖’을 달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하지만 젖 대신 식탁에 있는 음식에 맛을 들이면 다시 젖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 ...

- 약합니다. 주님은 ‘강진하라’ 말씀합니다.
-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 쉽게 병이 걸리고 다칩니다.
- 알아서 무엇을 먹지 못합니다. 아이라서 먹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 보십시오. 따라 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 쉽게 속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가 가 가
가 가](엡4:13-13a).

*완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누구나 성도는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란 정도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몇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진리’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가르치거나 전도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웅알이를 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년씩 기저귀를 차고 있고, 입에는 젖병을 물고 있다면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린 아이 취급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배운 것들을 한 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경험을 쌓고 싶어 합니다. 자라나야 그가 군인이 되든, 선생이 되든, 섬기는 일꾼이 되든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려면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성도에서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우리는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합니다. [가 가 가
가 가 .](엡4:15).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합니다. [가 가 가
가 가 .](벧후 3:18a).

▶ 아이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역자(minister). 그리스도의 사역자, 의의 사역자. 사역자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 가 가
가 가](딤후4:6).

▶ 아이들을 전투에 임할 군인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딤후2:3-4).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 아이들은 외국의 대사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고후5:20).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화해의 직분

납니다. 훈련을 견디지 못해 도중에 탈락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즉석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자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돌 곳이 없도다**’고 하셨습니다. 여우에게 있는 굴, 공중의 새들에게 있는 보금자리조차 없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대 심리를 완전히 부수어 놓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다거나 권세를 얻을 수 있다거나 명예를 얻거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기대를 했다면 크게 잘못 짚은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치와 능욕을 짊어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목사란 직업은 잘 하면 성도들에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습니다. 큰 교회를 한다면 사회적 지위와 권세도 없습니다. 저술, 출판, 강연 등을 통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단체를 결성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葬使)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그는 주님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훌가분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 이 세상의 일에 매여서 주님이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은퇴한 후에, 자식들 대학 졸업은 한 후에, 시집 장가는 보낸 후에, 돈을 좀 벌어서 후에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지금은 도저히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로 부름 받았지만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잘 찾아뵙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는 부모님이 헌신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의 부르심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 안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고 오직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 제자로 자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언뜻 보기에 그다지 어려운 요청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즉석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왜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일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마태나 빌립, 요한이나 베드로 등이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은 집으로 달려 간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집에 가서 작별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갈1:16)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부름 받을 때 ‘**주님은 너의 가족들을 먼저 설득해라, 너의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라, 너희 부모들의 노후는 누구에게 맡기고, 자녀들의 양육은 누구에게 부탁하라**’ 등등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부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가족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의 의견이 내게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을 막거나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단지 ‘good bye’가 아니라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9:62).

정리하면 제자가 되는 일은 첫째,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어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기대와 이득을 바라는 것은 안 된다.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대한 부푼 꿈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어서 이런 저런 성공, 축복, 승리,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리를 변질하고 교회를 세속화합니다.

둘째,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 은퇴 후, 자녀들을 다 키운 후,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 먹고 살만하면 등등...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형제, 친지,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줄로 아는 이들이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겠다는 자체가 이미 부적격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없이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할 때 주님은 무조건 받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연이어 제자로서의 부적격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26-33절을 펴 놓으십시오. [가 가 가 가 .](눅14:26-27). 이것은 신자의 조건이 아니라 제자의 조건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소유에 애착을 가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도가 되고, 성장하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말은 자기를 처형할 십자가,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형을 언도받으면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형장까지 메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죽음을 짊어 져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미리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듯이, 전쟁을 치르는 왕이 승패를 미리 가늠하듯이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미리 성경이 말하는 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충분히 심사숙고하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내 몸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 주님의 형상,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 몸과 삶과 언어와 행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영광을 취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함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가 가 .](눅14:33).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좀 더 교회에 헌신할 사람들, 신실하게 일할 사람들을 얻기 위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자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을 훑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제자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 되기'는 대부분 '훈련으로 되는 제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섬김과 봉사, 교회 내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기 등등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먼저 자신의 전 인생, 자신의 온 몸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소유는 물론이고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일이 그 시작입니다.

-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성경이 말한 바 제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거한다(요8:31). [, 가 () 가 가 가 .](요8:31). *continue in my word. 제자의 제일 조건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사상이나 가르침, 연구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가르침, 사상, 교훈, 생애 등을 사람들과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요15:7-8). [가 . 가 가 가 .](요15:7-8).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친교를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호 교제 속에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도 주님과 바른 관계성, 기도 생활에 근거합니다. 그 때에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로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 기도와 같은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온유, 친절,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 함께 있는 이들이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누군가 그 과실을 먹습니다. 정직하고 행하고 남을 돕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맛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뿐 아니라 세상은 성도들에게 그런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서 얻을 아무 열매도 보지 못할 때 욕하고 저주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다, 선데이 크리스천이다. 요즘 종교가 타락했다... 등등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셋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 가 .](눅9:23).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남이 잘되기를 구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배를 섬길 때 자신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많지만 제자들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넷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요13:34-35). [가 . 가 가 .](요13:34-35). "서로 사랑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형제를 위해 죽는 사랑을 말합니다. 말과 혀로써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써(요일3:18)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가 가 .](요일3:16). 형제 사랑은 우리가 주의 제자란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광고, 홍보, 전도보다 강력합니다.

※ 그리스도의 제자란 ...

- ▶ 예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 ▶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았다. 누구에게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 ▶ 순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모든 제자는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순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은 없으며 제자도도 없다.
- ▶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다. 주님은 제자들을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명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야망대신 가장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 단순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맘몬(재물)을 섬기지 아니할 때까지,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적인 삶의 능력과 풍요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할 때(히13:5), 먹고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때(딤후6:8) 제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 ▶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다. 육신적인 성도는 내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고, 신실한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고난을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제자들은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를 위해 받을 고난이 나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뻐합니다.